'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 찾은 대주교

19일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문예회관 전시장을 찾은 김희중(가운데) 히지노 광주대교구장과 신부 일행이 초대형 유리 작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약수터 갈 땐 개인컵 준비하세요

세균 무더기 검출 바가지 없애

"무등산에서 약수를 마시려면 반드시 개인컵을 준비하세요."

무등산 주요 약수터에 비치된 바가지에서 일반세균은 물론 총대장균군, 식중독 원인균 등이 무더기로 검출돼 바가지가 퇴출됐다. 따라서 앞으로 무등산에서 약수를 마시려면 개인컵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19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두메, 돌샘, 너덜경,중머리재, 늦재, 봉황대 등 약수터 6곳에 비치된 바가지 64개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식중독 원인균,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10가지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바가지에서 일반세균이, 54개에서 총대장균군, 14개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알균, 병원성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알균은 장독소를 생성시켜 대략 3시간 이후면 구토, 설사, 위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병원성 대장균은 발열 및 만성 설사증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결핵, 간염환자나 기타 전염성병원균 보균자 등이 바가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바가지 사용 금지를 권유했으며,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7일 너덜경, 중머리재, 봉황대, 돌샘, 늦재, 산장광장, 꼬막재, 평두메 등 무등산 내 약수터 8곳에 놓여 있던 바가지를 모두 회수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조만간 충장사와 청품쉼터 약수터에 비치된 바가지도 없애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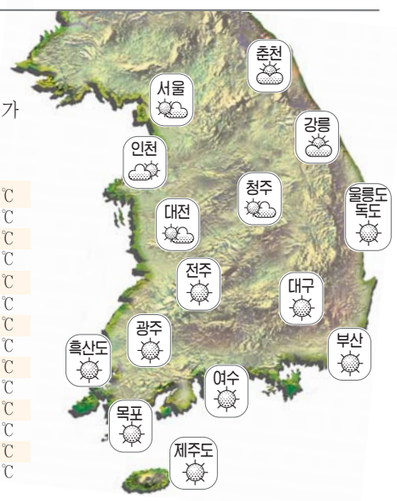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6분 해짐 19시 16분 달뜸 16시 28분 달짐 01시 31분

펄펄 끓는 태양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

광 주	맑 음	25/34℃
목 포	맑 음	25/32℃
여 수	맑 음	25/30℃
완 도	맑 음	24/32℃
구 례	구름 점차 많아짐	24/34℃
해 남	맑 음	24/32℃
장 흥	맑 음	24/32℃
고 흥	맑 음	23/32℃
순 천	구름 점차 많아짐	23/33℃
영 광	맑 음	24/33℃
진 도	구름 점차 많아짐	24/32℃
전 주	맑 음	24/34℃
남 원	맑 음	22/34℃
흑산도	맑 음	23/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높음	경고	매우높음

	밀물	썰물
목포	10:50	04:47
	--:--	16:34
여수	06:14	00:41
	19:16	12: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 씨						
최저/최고	25/34	25/33	24/32	24/31	24/31	24/31

광주 병·의원 MRI 보급률 최고

인구 10만명당 2.78대 … "서비스 질 향상" "과잉진료" 양론

비용이 5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의료 검진인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최근 수년 새 일반화됐다.

광주지역 병의원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대비 전국 최고여서 그만큼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0억원에 가까운 고가 의료장비인 MRI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의 검사횟수가 급증하는 등 과잉진료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은 물론 동네의원까지 MRI를 갖추는 등 공급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MRI를 찍고 보는 건강 염려증 환자도 덩달아 증가,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일 대한MRI학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광주지역 병·의원의 인구 10만명당 MRI(총 39대)대수는 2.78대로 전국 최고다. 서울(총 223대)이 10만명당 2.18대, 강원(30대)이 2.0대, 대전(29대) 1.93대, 대구(47대) 1.88대 등의 순이었다. 보유대수가 1.04대로 가장 낮은 충청지역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치이며, 인구가 비슷한 수준인 대전도 총 보유대수가 29대에 불과하다.

MRI는 각종 장기와 근육·인대·지방 등 신체 내부의 영상을 세밀하게 보여줘 어떤 진단법보다 해상도와 대조도가 높은 진단이라 할 수 있으며, CT(컴퓨터단층촬영)나 엑스레이와 달리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어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MRI 검사 비용은 촬영 부위 및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뇌의 경우 대학병원은 60만원선, 척추는 50만원 정도다. 일반 종합병원도 30~40만원으로 고가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암 판정을 받거나 허리 디스크 등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돼 20% 가량 저렴하며, 건강관리협회는 애초 모든 검사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MRI 비용이 24만~28만원 정도에 달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구청 구 금고 농협 승소

광주지법 판결 … 광주은행 항소키로

광주 남구청의 구 금고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농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9일 광주은행이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및 금고계약체결 절차이행' 소송에서 "광주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구청이 농협과 체결한 금고계약은 공법상계약에 해당하며 1, 2순위간 점수편차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제2차 심의위에서 광주은행을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농협 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금고계약의 정당한 지위가 농협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지리한 소송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금고관리가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은행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 남구 구금고로 선정됐으나 농협측이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제기한 금고지정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34.7도 올 최고

함평 35.2도 … 광주·전남 대부분 폭염주의보

휴일까지 폭염·열대야

19일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4.7도를 기록, 올 들어 최고를 갱신했다.

이날 함평은 35.2도·곡성 35도·장성 34.9도·나주 34.7도·무안이 34.5도를 기록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올 들어 최고기온을 보인 이유는 이틀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기온상승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습기가 없었으며, 구름도 적어 일사량이 많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기상관측 이래(1939~2010년) 기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94년 7월20일 전후다. 당시 7월24일 순천은 39.4도·21일 39.3도·19일 39도를 기록했다. 광주도 19일 38.5도·22일 38도·23일 37.7도, 장흥이 23일 38.7도·고흥 38.5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에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이 20여일 동안 지속돼 시민들이 큰 고통을 치렀다.

당시 중북부지방에는 집중호우로 가옥침수와 농경지유실·4명의 사망·실종자와 739억여원의 재산피해 등 물난리를 겪었던 반면, 남부지방에는 가뭄과 폭염이 20여 일 계속돼 일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극심한 농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여천공단내 남해화학과 호남정유·벽산 금강한양화학 등의 제조업체들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주부터 점차 평년기온(최저기온 18~23도, 최고기온 28~30도)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올 겨울 신종플루 다시 유행

9월부터 백신 무료접종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올 겨울철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무료 접종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 생후 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와 65세 이상 노인, 심장 · 폐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보호자를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로 정했다. /연합뉴스

국새 미스터리 파문 확산

자투리 금으로 정·관계 '숲도장' 로비설

제4대 국새와 관련한 의혹이 행정안전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새 제작단에 참여한 이창수씨가 민홍규 국새제작단장이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으로 도장을 만들어 정치권 인사와 당시 행정자치부 공무원에게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자부에서는 박명재 전 장관 등 국새 제작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들이 금 도장을 받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금 도장은커녕 나무 도장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이씨는 국새를 만들고 금 800g(시가 3천700만원 상당) 정도가 남아 민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민씨는 국새를 만들 때 금이 부족해 개인재산을 털어 금 2kg을 더 투입해 남은 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국새와 관련한 의혹은 제작단장인 민씨와 제작단에 참여한 이씨 간의 다툼으로 인해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않다.

두 사람의 다툼은 '황금 골프 퍼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와 이씨가 모두 '황금 퍼터' 제작에 뛰어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국새 제작자라고 주장하면서 반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